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 줄 슈발리에 신부님의 친구이자 신학교 시절부터 신실한 동반자였던 삐쁘롱 신부는 슈발리에 신부님이 세상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궁극적 계시인 예수님에 대한 비전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의 삶이 크게 바뀌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뚝뚝하고 냉담한 태도를 벗어나 친절해지고, 엄격함과 극도의 금욕주의를 넘어 부드럽고 동정심이 넘치며, 항상 용서하고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삐쁘롱 신부는 누군가 슈발리에 신부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의 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의 이러한 실존적 경험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계시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그를 그토록 변화시켰다면, 세상 역시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으로 새로워진 자신의 성품과 기질로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는 그의 모토이자 우리 슈발리에 가족의 모토입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 "당신의 마음이 모든 마음들의 사랑으로 온전히 완성되고, 그 모든 마음들이 어우러져 하나가 될 때, 당신의 마음은 정의와 진리 안에서 평화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예수 성심』, 84쪽).

"갈바리에서 찢리신 육화하신 말씀의 심장에서 나는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봅니다..."(『예수의 성심』, 119쪽). "예수님은 새로운 인간이십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서,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 자신을 내어 주시고 온갖 덕행의 원천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예수 성심』, 20쪽).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에게 자신과 닮은 형상을 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영광과 행복에는 충분하지만 하느님의 무한한 선하심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더 많은 것을 원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예수 성심』, 240쪽 참조).

"하느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장애물은 그분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지혜를 비웃으시며, 그 지혜의 예측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 지혜에 따르면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을 생명으로 부르시며, 죽음을 선고받았던 것을 풍성한 열매로 발전시키고 강화시키십니다" (줄 슈발리에, 1870).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

때때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좌절에 압도당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창조된 온 세상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고 인류를 망치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은 우리에게 해결책과 최후의 승리를 알려줍니다. 마음의 영성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발견하며, 이는 사랑의 힘을 믿는 구체적인 현실의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이미지와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변화의 힘을 발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사야 43:19)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새로운 일의 증인이자 도구입니다.



이달의 기도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왔다고 하느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를, 특히 나를.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다. 죄인인 나를. 하느님과 나, 이 얼마나 먼 거리인가! 영원과 무(無). 그리고 이 무(無)를 하느님께서서는 사랑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사랑받고 있으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친밀함, 부드러움, 용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이 그분께 하는 일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8일 피정』, 17-18쪽)

